



중국 금융시장 개방 로드맵 발표

- 이강(易綱) 중국인민은행장, 금융시장 개방 로드맵 발표(4/11)
 -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의 무역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시장 개방을 약속(4.10)한지 하루 만에 12개 이행조치(안) 발표
- (배경) 무역분쟁 해결과 금융당국의 자신감으로 단계적 금융시장 개방
 - 중국의 금융개방 로드맵 발표는 협상을 통한 美·中 무역분쟁 해결,
 - 외국자본에 밀리지 않는 토종금융의 경쟁력 확보와 시장개방 이후에도 외국자본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가능하다는 자신감 때문
 - '13년 금리자유화로 상업은행 예대금리 상하한선 폐지 이후에도 암묵적인 예금금리 상한선*으로 통제할 바 있음
 - * 대형은행은 기준금리의 1.3배, 중소은행은 기준금리 1.4배로 제한
- (주요 내용) 단계적 규제완화를 통해 중국 금융시장 개방 확대
 - 1단계 외국계 은행이 중국 토종은행을 100% 인수할 수 있고, 2단계 은행에서 증권, 보험 등으로 점진적 사업영역 제한 제거 ⇒ 개방 가속화

< 중국 금융시장 개방조치 >

1단계(시장은 6월 예상)	2단계(연내 시행)
①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외자비율 제한(현행 20%) 폐지, 외국은행 분행과 자은행 동시 설립 허용	① 외국계 신탁, 금융리스, 자동차금융, 지불결제, 소비자금융 허용 확대
② 증권사·자산운용사·선물사·생보사 외자지분 한도 51%로 확대(3년후 폐지)	② 외국계 금융자산투자사와 자산관리사(WM) 지분한도 폐지
③ 합작증권사의 최소 1개의 중국 파트너사 조건 폐지	③ 외국은행의 사업영역 확대
④ 5월1일부터 후강통, 선강통 투자한도 3~4배로 확대	④ 합작증권사 사업영역 제한 폐지
⑤ 외국계 보험대리업 업무 허용	⑤ 외국계 보험사 본사설립 전 중국내 대표사무소 설치요건 폐지
⑥ 외국계 보험사의 사업범위 제한 폐지	⑥ 후룬통(상하이-런던 증시 상호 투자허용) 연내 추진

주 : 중국인민은행

□ (국내 영향) 상대적으로 중국 진출이 더딘 한국계 금융사에 좋은 기회

○ (은행) '18년 하반기부터 한국계 은행은 중국 토종은행을 완전인수할 수 있고 금융영업 제한이 사라질 전망

- 中 토종은행을 인수하면 선점효과와 중국인 대상 영업 확대 가능
- 자회사 설립이나 직접 지점설치를 선택해야 했던 기존 진출 방식이 모두 자유로워지면 진출지역 여건에 맞춰 진출방식 결정과 영업확대
 - * 한국계 은행은 자회사 방식을 선택했었으나 본점이 중국에 직접 은행 설립할 경우, 본점 자본금에 기초한 대출한도 적용으로 보다 큰 규모의 영업 가능
- 신탁, 금융리스, 자동차금융, 소비자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를 점진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므로 새로운 사업영역 확대 가능

〈한국계 은행 진출 현황〉

- 자회사 설립하거나 한국 본점이 직접 지점(은행) 운영하거나 택일
- IBK, KEB하나, 우리, 신한, KB 등 시중은행은 중국법인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은행과 지행을 운영하여 대출한도와 위안화 업무 등 제약이 있음
 - * 외국계 은행이 자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점을 운영할 경우는 중국인 개인은 100만 위안(약 1.7억 원) 이상을 예치하지 않으면 외국계 은행에서 거래 불가능

○ (자본시장) 보다 매력적인 중국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

- 선강통과 후강통* 한도 확대 등으로 중국 증시의 국제화 및 거래규모 확대
 - * 선전과 홍콩, 상하이와 홍콩의 증시거래 연결, 상하이의 후(滬)와 홍콩의 강(港), 연결의 통(通)
 - *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주(9일~13일) 중국 증시로 해외자금 순수입 133억위안(약 23조원)
- 글로벌 투자은행(IB)이 중국에 진출하면 크레딧·PF·메자닌(전환사채, 인수인수권부채 등에 대한 투자)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 가능

□ (시사점) 中 금융시장개방 확대는 무역분쟁을 완화하고 중국기업 구조개혁을 가속화 하려는 시도이며 이를 이용한 국내 금융권의 활발한 움직임이 예상

(작성자 : 경제금융팀 차장 전준모 jjmeco@ibk.co.kr / ☎02-729-6458)